

#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 선정

김신록·서현우 배우... '전주씨네투어×마중' 프로그램으로도 관객과 만날 예정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개막식 사회자로 김신록 배우와 서현우 배우를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개막식 사회자로 선정된 김신록 배우는 장르를 불문하고 작품과 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치밀하고 독보적인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다. 드라마 「괴물」(2021), 「유괴의 날」(2023), 「언더커버 하이스쿨」(2025), 영화 「집중」(2022), 「설계자」(2024) 등에서 미세한 감정의 결을 살려 서사와 인물을 살아있게 만드는 연기로 호평을 받



김신록



서현우

왔다. 특히 「재벌집 막내아들」(2022),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1」(2021), 「지옥 시즌2」(2024), 넷플릭스 영화 「전란」(2024)에서는 뛰어난 연기로 전 세계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전주국제영화제 최초로 초청·상영되는 TV 드라마 「당신의 맛」에도 출연해 동료 배우들과 함께 '시네마, 담'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함께 개막식 사회자로 나서는 서현우 배우는 작품에 깊이 스며들어 살아있는 인물을 연기하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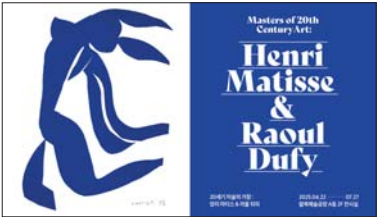
「정면을 사는 배우」라는 이명에서 알 수 있듯 자신만의 해석으로 밑도 높은 인물을 구축·완성하는 것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필모그래피에서 알 수 있듯 영화 「남산의 부장들」(2020), 「해어질 결심」(2022) 등 출연 작품마다 섬세한 내면 연기와 강렬한 존재감을 보였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2018), 웨이브 「박하경 여행기」(2023), 「열혈사제2」(2024), 디즈니플러스 「킬러들의 소광물」(2024), 「삼식이 삼촌」(2024) 등 TV와 OTT에서도 대체불가 배우로 자리매김해 스크린과 브라운관 모두에서 사랑받고 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로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관객들을 맞이한다. /장은성 기자

## 20세기 현대 미술 거장 발자취 조명

전주문화재단, '앙리 마티스와 라울 뒤피' 특별전 22일~7월 27일 개최

20세기 현대 미술의 두 거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전주에서 열린다. 16일 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팔복예술공간에서 '20세기 미술의 거장: 앙리 마티스와 라울 뒤피'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세기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두 예술가의 판화와 아트북을 중심으로 한 현대 회화 분야에서 남긴 발자취를 조명한다. 특히 이들이 선보인 대담한 실험정신과 시각적 유희, 시대를 초월한 미학적 가치에 주목하며, 예술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에는 마티스의 대표작 '채즈 시리즈'를 포함한 판화 및 아트북 80여 점과, 뒤피의 섬세한 색채 감각이 담긴 판화와 아트북 등 총 169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

은 두 작가의 개성이 살아 숨 쉬는 예술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앙리 마티스는 야수파를 창시하며 현대미술의 선두에 섰던 인물로, 특히 드로잉과 판화에 서도 단순하면서도 대담한 선과 형태를 추구해 '선의 연금술사'라 불렸다. 그는 컷아웃(cut-out) 기법을 활용해 구성주의적 표현의 정수를 보여줬으며, 아트북과 삽화 작업에서도 전위적인 표현을 시도해 새로운 예술적 지평을 열었다. 라울 뒤피는 마티스의 영향을 받아 야수파에 참여했고, 밝고 경쾌한 색채와 빛의 조형 언어를 통해 '삶의 기쁨(Joie de vivre)'을 예술로 구현한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자유로움과 환희로 가득 찬 색의 향연으로, 보는 이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감성적 여운을 동시에 선사한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20세기 미술사를 이끈 두 거장의 작품을 원화로 직접 감



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마티스와 뒤피의 예술세계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시는 팔복예술공간 A동 2층 전시실에서 열리며, 관람료는 성인 10,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8,000원과 6,000원이다. 20인 이상 단체 관람의 경우 할인된다. 65세 이상, 예술인·문화예술패스 소지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주시민은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티켓링크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현장 방문을 통한 입장도 가능하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미래문화콘텐츠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만의 특별한 영화관 '골목상영' 열린다

오는 30일 개막을 앞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전주만의 특별한 영화 상영 이벤트인 골목상영의 상영작 및 상영 일정을 공개했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인 골목상영은 봄이면 전주를 찾는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주국제영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대행사로 자리잡았다. 지난해까지 전주 영화의거리 및 부성길 내 위치한 골목에서 소

규모로 진행되던 골목상영은 관객들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전주시 일대로 확대됐다. 별도의 예매 없이 선착순 무료 상영으로 상영되는 골목상영은 영화제를 찾은 관객은 물론 전주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골목상영은 5월 1~8일 8일간 11개의 장소에서 매일 20시에 관객들을 만난다. 올해 상영작은 총 18편으로,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작품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을 수상한 「힘을 낼 시간」을 비롯한 「미망」, 「여름이 지나가면」, 「영화로 만들려고」, 「잡자리 구하기」, 「은빛살구」, 등 장편 6편과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대상을 수상한 「작별」을 비롯한 「땅거미」, 「양립동 소녀」, 「나도 모르게」, 「너에게 닿기를」, 「다-데이, 프라이데이」, 「라스트썸」, 「밝은 방」, 「서리다」, 「안경」,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현젤: 두 개의 교복치마」 등 단편 12편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관객과의 대화(GV)는 총 10회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 '안경-시선의 변화, 신분의 상징'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이달의 소장품 전시

김제시(시장 정성주)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4월 '이달의 소장품' 전시를 오는 5월 11일까지 '안경-시선의 변화, 신분의 상징'이라는 주제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내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경 1점과 안경집 6점'을 이달의 소장품으로 선정해 소개한다. 안경은 외래 기술의 산물이지만 조선에서는 사대부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수용되며, 시력 보정을 넘어 신분과 품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안경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조선 중기 문인 이호민(1553~1634)의 『오봉집(五峯集)』에 수록된 「안경명(眼鏡銘)」, 이수광(1563~1628)의 『지봉유설(芝峯瑣說)』 등에 작성된 기록을 통해 16세기 후반~17세기 초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왕실에서도 안경을 사용했으나, 공식 자리에서는 예절상 착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정조가 "안경을 쓰고 조정에 나가면 놀랄



이가 많다."며 자제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안경은 대목, 우각, 나무, 금속 등 재료의 변화와 함께 점차 가볍고 착용이 용이한 구조로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17세기 초부터 경주의 남석(수정) 안경이 자체 제작되며, 조선의 안경 기술이 독자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함께 전시되는 안경집은 단순한 보호용품을 넘어 조선 후기부터 신분과 재산을 나타내는 소품, 나아가 복식문화의 일부로 기능하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안경이 단순한 시각 보조 도구를 넘어 위계와 예절, 미적 감각과 상징성을 담은 유물임을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도태 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182개(공기업 20개, 준정부기관 52개, 기타 공공기관 110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기관 운영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조사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태권도원 상설공연단 운영 △국립태권도박물관 및 체험관 운영 △태권도원 관측 등 총 4개 부문에서 모두

목표를 달성하며,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올랐다. 세부 결과로 '태권도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부문은 태권도원의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태권도 체험활동과 함께 전문화, 차별화된 태권도 교육 품질로 참여자들로 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태권도원 상설공연단'과 '국립태권도박물관 및 체험관' 운영은 친절환 고객 응대와 태권도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 등으로 우수한 결과를 받았고 '태권도원 관측' 부문도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한 이용 편리성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박수범 완창무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소리꾼 박수범의 박봉술제 작백가 완창무대를 '2025 판소리마당' 소리 관-완창무대의 4월 두 번째 무대로 진행한다. 판소리마당은 국립민속국악원이 1998년부터 추진해 온 판소리 진흥 사업으로, 현재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소리꾼들이 판소리 다섯바탕을 완창으로 선보이는 기획공연이다. 올해 「소리 관-완창무대」에는 양은주, 박수범, 전지혜, 박수현, 나윤영 총 5인의 소리꾼이



참여한다. 이번 발표의 고수는 진도씻김굿 이수자이며, 제37회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태영으로, 공연은 전화(063-620-2329),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